명품·패션 이어 쿠팡까지…유통업계 고객정보 유출 '비상'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 산업계 전반 해킹 확산 고객들 불안
쿠팡 4명 중 3명꼴 고객 계정 유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털려
시민단체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도입 필요"

최근 편의점·홈쇼핑·명품 플렛폼을 가리지 않고 고객 정보가 연이어 해킹 당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특히 쿠팡이 정보 보안 문제를 노출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 사고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쿠팡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회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최근 유통업체에서는 해킹과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GS리테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 편의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홈쇼핑 웹사이트에서는 15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GS리테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대책 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역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지난 5~7월에는 디올과 티파니, 까르띠에,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도 지난 5월 해킹으로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외식업계 중에서는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난 6월 이를 고객에게 공지했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일부 카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산업계까지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시민단체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해결 방법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업체)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고객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신세계그룹과 세운 합작법인(JV)에 관심이 집중된다.

JV의 자회사로 편입된 G마켓(지마켓)을 두고 지난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정보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김정우 지마켓 PX본부장은 "고객 정보는 지마켓이 관리하며,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독립된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쌀·소고기 개방 없다지만…농도 전남 한미 비관세 협상 촉각

관세 협상 마무리 후속 협상 나서
식품 교역·지식재산권 등 포함
농민단체 "농산물 협상 대상 안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비관세 장벽 관련 후속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표 농도인 전남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만큼은 어떤 형태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하는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의제에는 식품·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해 온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이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비관세 협상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다. 여기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미국이 이를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쌀과 소고기부터 배·유자·매실·참다래(키위)·단감 등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도' 전남에서는 이번 협상이 지역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는 무관한 논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며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농민단체와 농협조직, 생산자 단체 사이에서는 "절차 개선이 곧 수입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력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과채류의 검역·허가 절차가 빨라질 경우 사실상 '추가 개방 효과'가 발생해 국산 농산물 주산지인 전남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양국이 농·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 측 신청 건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 전담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지역 농민들의 부담감이 늘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 비관세 협상 테이블에는 농산물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반출, 지식재산권, 환경·노동 규제, 수산보조금, 공급망 공조 등 다양한 의제가 함께 오를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1월 코스피 외인 역대 최대 팔고 개미는 '줍줍'

외국인, 코로나때보다 많이 팔아

11월 코스피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대거 '쇼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4560억원 순매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월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액은 2020년 3월 기록한 12조5174억원이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우려 등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7조4000억원, 5조3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2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8조8028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번지면서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8조7310억원어치 팔았으며, 삼성전자도 2조2290억원어치 순매도해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외국인의 이달 코스피 순매도액 중 76%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7870억원), 네이버(6060억원), KB금융(558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9조2870억원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개인이 이달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SK하이닉스로 5조976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도 1조2900억원어치 순매수해 두 번째로 많이 담았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9880억원), 네이버(872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615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샀다.

증권가에선 이미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호남권 최초 '톰 브라운' 여성 단독매장

광주신세계는 "본관 2층에 호남권 최초로 '톰 브라운(Thom Browne)' 여성 단독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톰 브라운은 전 세계 40개국에 걸쳐 300개 이상의 주요 백화점과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과 런던, 밀라노, 도쿄,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서울 등에 110개의 직영 매장이 있다.

광주신세계는 호남권 최초로 톰 브라운 여성 단독 매장을 선보이며, 최고급 소재를 활용해 기존 스타일과 차별점을 두고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해당 매장에서는 톰 브라운의 '26SS 컬렉션'도 만나볼 수 있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최초로 단독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며 "광주신세계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인 톰 브라운의 다양한 아이템과 신상품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여성 모델이 톰 브라운의 신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민간소비 구조적 제약"

최근 10년간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원리금 부담 여파로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상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p) 올랐다. 77개 나라 가운데 중국(+26.2%p), 홍콩(+22.5%p)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서는 2014년 1분기~2025년 1분기 17개국 중 우리나라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 폭(+1.6%p)이 노르웨이(+5.9%p) 다음으로 2위였다.

반대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오히려 1.3%p 떨어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셋다운에 주담대 멈추고 신용대출 폭증

대출금리 하단도 4%대 진입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급감하고 연말 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창구 문을 닫으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사실상 멈춰 섰다.

반대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을 메우고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린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중심으로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7일 현재 768조1538억원으로 이달 들어 1조5319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가 폭이 10월(+2조5270억원)보다 줄었지만, 9월(+1조1964억원)과 비교하면 더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잔액 610조9284억원)의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증가액 2823억원은 지난해 3월 4494억원 뒷걸음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소 기록이다. 하루 평균 105억원 정도 늘어난 셈인데 사실상 정체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반대로 신용대출(잔액 105조8717억원)은 1조1387억원 불어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신용대출 가운데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27일 현재 40조3843억원으로 10월 말보다 9171억원이나 늘었다. 나머지 일반 신용대출 증가 폭(+2216억원)의 4배가 넘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 은행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모두 올해 관리 목표를 넘어선 만큼 사실상 다수 은행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막힌 상태"라며 "이 가운데 대출 상환만 계속 이뤄지면서 증가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의 이례적 증가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020~6.172% 수준이다.

앞서 이달 중순께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하단도 약 1년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610~5.100%에서 3.830~5.310%로 상단이 0.210%p, 하단이 0.22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119%p 오른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20~5.880%)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56%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5%p 높아졌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확률 속인 아이템 판 웹젠 공정위 과징금 1억5800만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공정위는 웹젠에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2024년 3월 2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20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2	4	16	20	32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57,299,875	12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932,497	80
3	5개 숫자일치	1,315,458	3,584
4	4개 숫자일치	50,000	161,754
5	3개 숫자일치	5,000	2,673,060